



12면

전주대사습관소리 명창부 장원 선정

전주매일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음 4월 19일) 제32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발판 마련 '착착'

이차전지산업 진흥·육성 조례 제정으로 근거 마련
내달부터 관련 기업 역량강화 지원... 전담팀도 신설

전북도가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 전담팀 신설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발판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먼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달 전라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6월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는 나인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김제1)의 대표발의와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체 공동 발의로 제정됐으며, △이차전지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차전지 산업 육성사업 추진,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 이차전지 기업 지원과 관련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물론 산업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급증하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 지원을 위해 7월부터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이차전지 기술개발(R&D)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이차전지 산업 육성 연합체 구성·운영 등이며, 특히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2월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내 이차전지 기업 등과 함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이차전지솔루션센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해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도 신설된다.

전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 내에 이차전지·반도체팀을 7월 인사에 반영해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해 이차전지 사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택립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에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는 이차전지 산업을 전북도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9일 익산서 '팡파르'

전국 1200여명 선수단 참가

전북장애인체육회(회장 김관영)은 오는 9~11일, 익산에서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된다 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8개 종목(당구, 볼링, 수영, 파크골프, 스크린골프, 좌사배구, 트라이애슬론)에 전국 17개 시도 1,200여 명의 어울림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전국 최대 규모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다. 전북선수단은 전북장애인체육회 이

경영 사무처장을 총감독으로 전 종목에 총 154명(선수119, 임원 및 관계자 35)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이중 비장애인 선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및 지역대학과 연계한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제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개최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장애인 체육대회 4개 대회를 모두 개최한 그랜드슬램을 기록했다. /정은성 기자



6일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 광장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도내 곳곳 현충일 추념식 거행... 보존문화 도내 확산 전파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국영령 합동추모제 등 기념행사 마련

전북도는 현충일인 6일 국립 임실 호국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모시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은 물론 그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야 명예로운 삶을 지킬 수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걸음을 발판삼아 앞으로 더 새롭게 태어날 전북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이는 다양한 보훈행사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우리 도민들 사이에 보훈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군경묘지 및 충혼탑 등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도내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란 주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예우와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8·25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위한 '호국영령 합동추모제' 등이 6월중 전주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일보사가 주관하는 '제49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을 비롯해 다양한 호국보훈 관련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7일에는 국가보훈처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변모하는 '국가보훈부 승격 축하 보훈가족 콘서트'가 K-필하모닉오케스트라 주최로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김재훈 기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남원·고창·부안 선정

농촌생활SOC·공간정비
일자리 분야 등 총 21개
5년동안 1316억원 투입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3년 농촌협약 공모에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공간정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총 21개 사업이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 농촌협약 평가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도내 총 7개 시군이 농촌협약 체결을 완료(2020년 임실군·순창군, 2021년 김제시·진안군·무주군, 2022년 군산시·익산시)해, 도내 시군 농촌협약체결률(54%)이 전국 시군 협약체결률(43%)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번 농촌협약에 선정된 도내 3개 시군에는 5년간 1,316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남원시는 서부남원생활권을 우선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산업과 문화고도화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서부남원생활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활성화사업으로 기초거점조성 7개와 농촌공간정비 등 총 16개 사업(387억원)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단일생활권으로 '체계속의 생활권보전지역, 군민이 행복한 농촌다움보전지역 고창'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2개, 기초생활거점조성 4개, 농촌공간정비 1개 등 총 17개 사업(589억원)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단일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연계 플랫폼 구축으로 도약하는 리뉴얼 플러스 부안'이라는 비전을 설정해, 농촌중심지활성화 1개, 기초생활거점조성 3개, 역량강화 등 총 9개 사업(340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마련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료·복지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세이백공제, 답례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부하고 혜택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남원시를 응원해주세요

남원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

쉽고, 편리하게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 e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 e음

1인당
500만원 한도

상품/서비스

- 기부현황 >
- 내계좌관리 >
- 답례품 고르기 >
- 기부금 사용용도 >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 http://www.namwon.go.kr